

주말부부와 일반부부의 자녀양육 비교 연구*

- 유아기와 학령초기 자녀를 둔 부부를 중심으로 -

A Comparison of Dual Residence Couple's and Single Residence Couple's Child-rearing.

호서대학교 인간개발학부 아동학 전공

조교수 한 유 미**

Major in Child Studies, Hoseo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Han, You-M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is any difference between the dual residence couples and the single residence couples in terms of the situation of child care, development of their child and mother's parenting guilty or parenting stress. Also,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variables which influence parenting guilty and parenting stress of dual residence mothers. The 178 mothers of three to eight year-old participated the survey. Half of them were dual residence mothers and another half were those of single residence. These two groups were matched in terms of the occupation of the mother and the age of the child. Major finding were as follows.

1) Compared with single residence couples, dual residence couples used multiple methods of child care. And they depended maternal families more than paternal ones as a care-giver. They also payed much more for the child care than single residence couples.

2) Children of the dual residence couples did not differ with those of the single residence couples in terms of cognitive and social development.

3) Dual residence mothers had more parenting guilty than those of single residence while these two groups did not differ in terms of parenting stress.

4) While dual residence mother's parenting guilty was significantly related with the amount of information provided by the paternal families, their parenting stress was significantly related with the frequencies of communicating with the husband, the mother's age, the flexibility of time in the mother's work place, the mother's orientation to the career, and the supports of the husband.

In conclusion, dual residence families in Korea were not so negative as expected.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arenting difficulties of the dual residence mothers could be decreased by the change of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s and the psycho-social support of the husband.

▲ 주요어 (key words) : 주말부부(dual residence couples), 양육죄책감(parenting guilty),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본 연구는 한국가정관리학회의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며, 한국가정관리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주저자 : 한유미(e-mail : hanyu@office.hoseo.ac.kr)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서 사회의 변화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전세계적으로 가족은 세대간의 수직적 관계가 중시되던 전통적인 가족에서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되는 핵가족으로 변화를 겪었다. 공동거주, 경제적 협동, 재생산을 주요 특성으로 하는 핵가족은 지리적 이동성이 높아 자본주의 및 산업사회의 노동 시장 요구에 가장 적합한 가족 유형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산업화로 인한 가족 가치의 변화는 결국

핵가족의 주요 특성인 공동거주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비동거 가족이라는 새로운 생활 양식을 창출하게 되었다. 즉, 과거 세대간의 분가나 독립을 뜻하던 핵가족화 수준을 뛰어 넘어, 남편과 부인이 서로 떨어져 생활하는 세대내의 분거 쪽으로 가족 구조의 변화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동거 가족의 형태는 시대별로 다소 다른 양상을 띠고 있어, 우리 나라의 경우 1960년대에는 이농현상으로 인한 일시적 비동거 가족의 형태를 취했으며, 1970년대에는 중동의 건설 붐으로 인한 해외인력수출정책으로 1년 이상의 장기적인 비동거 가족이 주류를 이루었다. 1980년대 들어와서는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어 지방 산업의 활성화로 남편은 지방에, 부인과 자녀는 대도시에 남는 주말가족이 증가하게 되었다(김태현·박숙자, 1992; 박숙자, 1994). 그리고 최근에는 여성의 자아실현을 위한 맞벌이 주말부부(commuter couple)가 출현하고 있다.

과거의 주말부부가 주로 부양자인 남편의 직업이나 자녀교육 문제로 인하여 남편만 떨어져 사는 남편 외유형의 홀벌이 주말부부라면, 최근 증가하는 맞벌이 주말부부는 부부의 직장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부가 각자 따로 거주하며 자주 만나는 별거 왕래형 가족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맞벌이 주말부부들은 통근 결혼(commuter marriage), 두 지역 가족(two-location family), 결혼한 독신(married single), 장거리 가족(long-distance family)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들은 가정 생활과 직업을 동시에 추구하는 부부로서 전문직, 기술직이나 관리직 종사자가 많다(채옥희, 1998). 왜냐하면 전문 직종의 경우 남편과 부인이 둘 다 같은 지역에서 직업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즉, 경제적 이유에서 비롯되던 종래의 주말부부 가족은 비자발적으로 분거가 이루어지고 남편의 직업에 의해 분거가 결정되었으나, 경제적 목적보다는 부인의 직업적 성취와 자아실현이 중시되는 맞벌이 주말부부 가족에서는 분거가 자발적 결정이며, 남편과 부인중 누가 이동할 것인지를 선택한다(Gerstel & Gross, 1982).

한편 Groves & Horm-Wingerd(1991)에 의하면, 맞벌이 주말부부들은 사회적 통념만큼 자신들의 상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역동적이고 일시적인 생활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맞벌이 주말부부들은 오히려 전통적인 부부보다 생명력이 강하다는 관점도 존재한다(Goldberg & Meitz, 1985). 그러나 대체로 아직까지 맞벌이 주말부부를 포함한 주말부부 가족은 일반부부 가족에 비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김태현·박숙자, 1992; 박숙자, 1991). Gerstel & Gross(1982)에 따르던 주말에 부부가 합류하고 자녀가 없는 등 특수한 상황하에서만 주말부부의 이점이 비용(cost)을 능가할 수 있으며, 주말부부로 인한 비용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하다고 한다. 특히 자녀 양육은 주말부부들이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문제이다. 맞벌이 주말부부인 여교사들에 대한 허영숙(1993)의 연구에서 부모역할갈등, 부부

역할갈등, 직업역할갈등 중 부모역할에 대한 갈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발견되었으며, 이기숙(1999)의 연구에서도 남편과 부인 관계없이 가장 큰 관심사는 자녀양육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과 해외근무지의 비동거 가족 즉, 남편외유형 주말부부를 대상으로 한 김태현·박숙자(1992)의 연구에서 이들 부인들은 자녀 양육 및 교육 영역에서 가장 많은 불만을 보이고 있었으며, 부모의 비동거가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응답이 90%이었다. 이와 같이 자녀가 있는 주말부부들은 한 배우자는 주중에 독신과 같은 생활을 하는 반면, 다른 배우자는 편부 또는 편모로서의 역할을 행해야 함으로써 한 배우자의 장점이 다른 배우자에게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김은경, 1999). 또한 자녀의 입장에서도 적절한 시기에 한쪽 부모로부터 애정이나 적절한 통제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어 주말부부 가족은 부모자녀관계뿐 아니라 아동의 적응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주말부부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양육과 관련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주말부부의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자녀의 수가 많고(옥경희, 1999; Winfield, 1985) 해당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박희선, 1999; 이기숙, 1999; 채옥희, 1998) 그리고 자녀의 성별이 남아인 경우(박희선, 1999) 더 큰 것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옥경희(1999)의 연구에서 첫 자녀의 연령과 주말부부의 부모역할의 어려움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 못지 않게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전통적인 주말부부 유형인 남편외유형 홀벌이 주말부부와 별거왕래형의 맞벌이 주말부부의 주요 분류 기준인 부인의 취업 역시 자녀양육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어머니의 취업 여부보다는 취업 동기, 직종, 근무 조건, 가치관 등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맞벌이 주말부부의 부모역할 갈등은 직종에 따라 차이가 날 뿐 아니라(Winfield, 1985) 업무시간의 융통성(옥경희, 1999; Gross & Gerstel, 1984)이나 부부의 근무시간의 거리(Gross & Gerstel, 1984)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주말부부는 남편외유형 홀벌이 주말부부와 별거왕래형 맞벌이 주말부부 등 구조적 특성에 따라 구분될 수도 있지만, 같은 유형의 주말부부일지라도 가족이 방문하는 빈도나 함께 지내는 시간 등 내용적 측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주말부부들은 아버지의 방문이 빈번하고(김경은·정옥분, 1998; 박희선, 1999) 방문기간이 길수록(박희선, 1999)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감소함을 보고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들은 주말부부의 자녀양육 문제는 주말부부 관련 변인, 인구통계학적 변인, 어머니의 취업 관련 변인, 심리 사회적 지원 변인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비교집단 없이 주말부부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경은·정옥분, 1998; 김태현·박숙자, 1992; 박희선, 1999; 옥경희,

1999; 채옥희, 1998; 허영숙, 1993)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연구결과가 주말부부라는 상황에 의한 것인지 혹은 일반적인 부모역할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주말부부를 일반부부와 비교(집단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몇몇 연구들(이기숙, 1999; Gerstel, 1978; Kasinsky & Gerstel, 1978)은 비교집단을 포함시켰지만, 포괄적인 주말부부보다는 맞벌이 주말부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혼 여성의 취업 및 자아실현 욕구가 증대되는 동시에 자녀교육열 역시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맞벌이 주말부부뿐 아니라 자녀의 교육으로 인한 전통적인 주말부부도 아직 많이 존재하므로 두 유형의 주말부부를 모두 포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주말부부 유형에 따라라도 양육문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두 유형의 주말부부를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주말부부 집단내 비교). 셋째, 주말부부의 양육문제를 부모입장에서 접근하고 아동발달 측면에서 본 연구(김경은·정옥분, 1998)는 거의 없으며, 이 경우에도 사회성 발달만을 다루고 있다. 주말부부의 자녀양육 문제를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떨어져 생활함으로써 인해 부부(부모)뿐 아니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2. 연구목적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말부부의 자녀양육상의 어려움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인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죄책감과 자녀의 인지적, 사회성 발달, 그리고 대리양육 실태를 중심으로 만 3세부터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홀벌이 또는 맞벌이 주말부부 어머니와 이들과 유사한 특성의 일반부부 어머니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주말부부 집단내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주말부부 어머니의 양육죄책감과 양육스트레스를 주말부부 관련 변인, 인구통계학적 변인, 어머니의 취업 관련 변인, 심리 사회적 지원 변인 등에 따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는 현대사회에서 계속 증가할 주말부부의 자녀양육문제를 파악함으로써 주말부부의 양육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이들이 겪게 될 자녀양육상의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1> 주말부부와 일반부부의 대리양육 실태

- 1-1 : 주말부부와 일반부부의 대리양육 유형은 어떠한가?
- 1-2 : 주말부부와 일반부부의 대리양육 비용은 얼마인가?
- 1-3 : 주말부부와 일반부부의 대리양육 만족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주말부부와 일반부부의 자녀 발달

- 2-1 : 주말부부 어머니 자녀의 인지 발달은 일반 어머니 자녀와 차이가 있는가?

- 2-2 : 주말부부 어머니 자녀의 사회성 발달은 일반 어머니 자녀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3> 주말부부와 일반부부의 양육 문제

- 3-1 : 주말부부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은 일반 어머니와 차이가 있는가?
- 3-2 : 주말부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일반 어머니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4> 주말부부 어머니의 양육문제와 관련 변인

- 4-1 : 주말부부 어머니의 양육죄책감과 관련된 변인은 무엇인가?
- 4-2 : 주말부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인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유아기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만3-8세)를 둔 주말부부 어머니 87명과 일반부부 어머니 87명으로 총 174명의 어머니이다. 주말부부 집단은 대부분의 선행연구들(김은경, 1999; 박희선, 1999; 이기숙, 1999; 채옥희, 1998; Gerstel & Gross, 1984; Goldberg & Meitz, 1985)과 같이 일주일에 최소한 3일 이상 떨어져 지내는 생활을 3개월 이상 지속한 부부로 한정하였으며, 주양육자의 역할로 인한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자녀가 어머니와 동거하는 경우만 포함시켰다. 분석에 사용된 연구대상 어머니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1) 주말부부의 일반적 특성 및 자녀양육실태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변인 외에 선행연구들을 참고로 하여 주말부부 관련 변인(예, 주말부부가 된 동기, 방문 빈도 등)과 심리사회적 지원 변인 그리고 대리양육 실태에 관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심리사회적 지원 중 남편의 협조는 Abidin(1990)을 변인·수정한 신숙재(1997)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13-65점의 범위를 갖고 있으며, Cronbach Alpha는 .85이다.

2) 자녀의 인지 및 사회성 발달

본 연구에서 자녀의 발달은 자녀가 한글이나 숫자와 같은 인지적 영역과 친구 관계 등의 사회성 영역을 또래에 비해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어머니가 지각하는가로 측정하였다. 자녀의 인지 발달과 사회성 발달 정도는 Galper, Wigfield, & Seefeldt(1997)의 Parents' Evaluations of Children's Interests,

Abilities, and Effort를 일부 수정,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Galperet et al.(1997)의 척도는 친구 관계, 스포츠, 숫자, 알파벳, 읽기 등의 영역을 자녀가 얼마나 잘하는가를 묻는 자녀의 발달에 대한 '지각' 차원과 어머니는 자녀가 해당 영역을 잘하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기대' 차원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숫자나 문자 등의 인지적 영역과 친구 관계 등의 사회적 영역의 발달에 대한 지각 차원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서 총 8-40점의 범위를 보이며, Cronbach Alpha로 구한 하위영역별 Cronbach Alpha는 .87과 .89이었다.

3) 어머니의 양육죄책감

본 연구에서 양육죄책감은 부모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자녀에게 느끼는 미안한 감정을 말한다. 이와 같은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은 박숙자(1991)와 정기선(1985) 등 선행연구를 참고로 박희선(1999)이 개발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일반적 죄책감, 가족안전에 대한 죄책감, 자녀교육에 대한 죄책감을 중심으로 총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자녀교육에 대한 죄책감을 파악하기 위해 아동발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서, 인지, 성격 발달의 3가지 측면이 포함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죄책감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 Alpha로 산출한 신뢰도는 .90이었다.

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를 부모 됨으로 인해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로 보았다. 이와 같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Crinic & Greenberg (1990)의 PDH(Parenting Daily Hassles)를 번안·수정한 박성욱·양영숙(199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됨으로 인한 스트레스(8문항)'와 '자녀양육 요인(7문항)'의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 범위는 13-65점이며, Cronbach Alpha는 .88이었다.

3. 자료수집

주말부부가 일반적인 대상은 아닌데다가 어린 자녀를 갖고 있는 주말부부는 더욱 흔치 않아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연구대상을 표집하였다. 첫 번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을 통하여 학부모 중에 주말부부 어머니를 구했다. 둘째, 주말부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장(예, 대학)에 근무하는 연구자를 통해 주말부부 어머니를 소개받고, 그 어머니로부터 또 다른 대상자를 소개받는 스노우볼(snowball) 방식을 사용했다. 셋째, 주말부부 인터넷 동호회(daum의 '주말부부이야기', Zubu21의 '주말부부방', iloveschool의 '주말부부모임')을 통해 주말부부 회원들에게 연구참여를 부탁하는 글을 게시판에 올리거나 전자우편을 발송하였다.

주말부부 어머니와의 비교를 위한 일반어머니 집단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표집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주말부부 어머니로부터 주말부부라는 상황을 제외하면 자신과 연령, 직업, 자녀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특성을 가진 어머니(예, 친구, 직장 동료)를 소개받았다. 둘째, 이러한 방법이 어렵거나 매칭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대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학급 단위로 일반 어머니를 표집 한 후 어머니의 직업이나 연령, 해당 아이 연령 등을 매칭하여 비교집단을 추출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N=174				
변인	구분	주말부부 빈도(%)	일반부부 빈도(%)	전체 빈도(%)
어머니의 연령	30세 이하	14(16.1)	16(18.4)	30(17.2)
	31-35세	35(40.2)	35(40.2)	70(40.2)
	36-40세	27(31.0)	28(32.2)	55(31.6)
	41세 이상	11(12.6)	8(9.2)	19(10.9)
어머니의 학력	고졸 이하	27(31.0)	24(25.1)	51(29.3)
	초대졸	7(8.0)	9(10.3)	16(9.2)
	대졸	43(49.4)	40(46.0)	83(47.7)
어머니의 직업	대학원 이상	10(11.5)	14(16.0)	24(13.8)
	전문직	33(37.9)	34(39.1)	67(38.5)
	비전문직	20(23.0)	19(21.8)	39(22.4)
월평균 어머니의 소득	무직	34(39.1)	34(39.1)	68(39.1)
	0원	34(39.1)	32(39.5)	67(41.6)
	100만원 이하	12(15.0)	10(12.3)	22(13.7)
	101-200만원	18(25.7)	24(29.6)	41(25.5)
월평균 가정 총소득	201-300만원	11(13.8)	12(14.8)	23(14.3)
	301만원 이상	5(6.3)	3(3.7)	8(5.0)
	150만원 이하	4(5.6)	2(2.9)	6(4.3)
	151-300만원	26(36.7)	24(34.3)	50(35.5)
	301-450만원	16(22.5)	26(37.1)	42(29.8)
해당 자녀의 연령	451-600만원	17(23.9)	12(17.1)	29(20.6)
	601만원 이상	8(11.2)	6(8.6)	14(9.9)
	3-4세	25(28.7)	23(26.4)	48(27.6)
해당 자녀의 성별	5-6세	34(39.1)	42(48.3)	76(43.7)
	7-8세	28(32.2)	22(25.3)	50(28.7)
자녀 수	남	45(51.7)	45(51.7)	90(51.7)
	녀	42(48.3)	42(48.3)	84(48.3)
	1명	23(26.4)	24(27.6)	47(27.0)
지역	2명	56(64.4)	51(58.6)	107(61.5)
	3명 이상	8(9.1)	12(13.7)	20(11.4)
	대도시	34(39.1)	34(39.1)	68(39.1)
지역	중·소도시	34(39.1)	33(37.9)	67(38.5)
	농·어촌	19(21.8)	20(23.0)	39(22.4)

이상과 같이 선정된 연구대상에게 질문지를 연구자 또는 연구보조자가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회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질문지를 배부한 경우 미개봉이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회수율이 극히 저조했으며, 매칭을 위해 의도적으로 일반부부 어머니 이용 질문지를 많이 배포했으므로 회수율을 산출하기 어려웠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되었다. 연구문제 1은 백분율, 빈도,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와 t검증 등의 통계를 이용하였다. 연구문제 2는 이원변량분석으로, 연구문제 3은 이원공변량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4에는 t검증이나 일원변량분석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주말부부와 일반부부의 대리양육 실태

1) 대리양육 방법

<표 2>는 대리양육 방법을 시택 및 친정과 동거하면서 아이를 맡기는 경우, 시택 및 친정 식구가 집으로 와서 아이들 돌보아주거나 아이를 그 집에 보내는 경우, 파출부 및 입주 가정부를 고용하는 경우, 종일제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이웃집에 아이를 맡기는 경우 등 8가지로 분류하고, 복수 응답하게 한 결과이다. 전체 174명의 연구대상 중 134명이 대리양육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중 주말부부 어머니와 일반부부 어머니는 각기 67명으로 두 집단 모두 대리양육을 하는 비율은 71.3%로 동일했다. 대리양육을 하는 134사례를 기준으로 백분율을 구한 결과, 주말부부 집단(67명)의 경우 2가지 이상의 대리양육 방법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25.8%), 그 다음으로는 종일제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경우(22.6%)와 친정 식구가 집으로 와서 아이를 돌보아 주거나 친정으로 아이를 보낸다는 응답(16.1%)이 많았다. 3가지 이상의 대리양육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13%나 되었다. 이에 비해 시택 식구가 집에 와서 아이를 돌보아 주거나 시택으로 아이를 보내는 사례는 얼마 안되었다.

<표 2> 대리양육 방법(N=134)

	주말	일반
시택 동거	3(4.8)	7(11.3)
친정 동거	3(4.8)	3(4.8)
시택 식구	1(1.6)	7(11.3)
친정 식구	10(16.1)	5(8.1)
파출부	3(4.8)	3(4.8)
입주 가정부	1(1.6)	1(1.6)
종 일 제	14(22.6)	22(35.5)
이웃 집	3(4.8)	1(1.6)
2가지	16(25.8)	8(12.9)
3가지 이상	8(12.9)	5(8.1)
계	62(100)	62(100)

일반부부 집단의 경우에는 종일제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35.5%), 그 다음은 시택과 동거하거나(11.3%) 시택 식구가 집으로 와서 아이를 돌보아 주거나 시택으로 아이를 보낸다는 응답(11.3%)이 많았다.

2) 대리양육 비용

월평균 대리양육 비용은 대리양육을 하지 않거나 대리양육을 하더라도 대리양육자(대개 친인척)에게 대리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균을 산출했다. 대리양육 비용이 0인 사례를 포함하여 평균을 산출하면 대리양육비를 지불하는 경우의 평균 소요 비용을 현저히 낮추어 현실적인 대리양육 비용을 알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주말부부 집단은 월 평균 42만원, 일반부부 집단은 31만 8천1백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t=1.99, p<.05) 일반부부에 비해 주말부부 집단이 대리양육에 월 10만원 정도 더 지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 대리양육 비용

단위(만원)

	M(SD)	t
주말부부(n=60)	42.00(26.11)	1.99*
일반부부(n=63)	31.81(30.48)	

* p<.05

3) 대리양육 만족도

대리양육자에 대해서는 <표 4>와 같이 주말부부 어머니의 5%이하만이 불만족하고 있었고 대부분은 보통(45.6%) 또는 약간 만족(38.2%)하고 있었다. 주말부부 어머니에 비해 일반부부 어머니는 대리양육에 불만족하고 있는 경우가 다소 많았지만 전반적으로 대리양육자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주말부부와 일반부부 어머니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대리양육에 대한 만족도

빈도(%)

	주말 부부	일반 부부
매우 불만		1(1.5)
약간 불만	3(4.4)	5(7.5)
보통	31(45.6)	26(38.8)
약간 만족	26(38.2)	31(46.3)
매우 만족	8(11.8)	4(6.0)
계	68(100)	67(100)

2. 주말부부와 일반부부의 자녀발달

자녀의 인지 발달 및 사회성 발달은 주말부부나 일반부부나 하는 점 외에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표 5>와 같이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주말부부 집단과 일반부부 집단의 자녀 발달을 비교하였다.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주말부부 집단보다 일반부부 집단의 자녀가 인지발달과 사회성 발달 모두 약간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사회성 발달은 주말부부 집단보다 일반부부 집단의 자녀가 약간 높은 점수를 보이지만 인지 발달은 오히려 주말부부 집단의 자녀가 미미하나마 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

<표 5> 주말부부와 일반부부의 자녀발달 (N=174)

	취업 모(n=105)			전업 주부(n=69)		
	주말 M(SD)	일반 M(SD)	계 M(SD)	주말 M(SD)	일반 M(SD)	계 M(SD)
인지 발달	14.53 (4.17)	5.04 (2.83)	14.78 (3.56)	15.35 (3.56)	15.12 (3.53)	15.24 (3.52)
사회성 발달	14.77 (3.77)	15.60 (3.62)	15.19 (3.70)	14.68 (3.95)	15.53 (3.54)	15.10 (3.75)
계	29.30 (5.78)	30.64 (5.39)	29.97 (5.60)	30.03 (6.41)	30.65 (5.38)	30.34 (5.88)

그러나 어머니 취업 X 주말부부로 실시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주말부부 주효과(인지 F= .06, n.s.; 사회성 F= 2.11, n.s.) 및 어머니 취업 주효과(인지 F= .02, n.s.; 사회성 F= .17, n.s.)와 상호작용 효과(인지 F= .45, n.s.; 사회성 F= .00, n.s.) 모두 유의하지 않아 주말부부와 일반부부의 자녀간에는 인지 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주말부부와 일반부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죄책감

<표 6>과 같이 취업모의 경우와 비취업모의 경우 모두 주말부부 어머니가 일반어머니보다 양육죄책감이 높았다. 그러나 양육스트레스는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주말부부와 일반부부 집단간에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나 양육죄책감에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뿐 아니라 자녀의 연령이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요인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표집 과정 자체에서 해당 자녀의 연령을 매칭하였다. 그러나 양육스트레스나 양육죄책감은 어떤 한 자녀에게만 느끼기보다는 자녀 전체에 대해 느끼는 일반적인 심리상태이므로 해당 자녀의 연령 외에 막내 자녀의 연령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에 따라 막내 자녀의 연령을 공변량으로 하여 어머니의 취업 X 주말부부의 이원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서는 주말부부 주효과(F=.01, n.s.)와 어머니 취업 주효과(F=7.55, n.s.), 상호작용 효

과(F=.13, n.s.) 모두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은 <표 7>과 같이 주말부부 주효과(F=128.42, p<.01)와 어머니 취업 주효과(F=5.51, p<.05)가 유의했으며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F=.01, n.s.). 즉,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주말부부이든 아니든 그리고 어머니가 취업을 했던 안 했던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은 일반부부보다 주말부부인 경우 그리고 전업주부보다는 취업한 경우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6> 주말부부와 일반부부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죄책감 (N=174)

	취업 모(n=105)			전업 주부(n=69)		
	주말 M(SD)	일반 M(SD)	계 M(SD)	주말 M(SD)	일반 M(SD)	계 M(SD)
양육 죄책감	25.04 (7.93)	23.96 (6.47)	24.50 (7.21)	25.69 (7.76)	24.41 (6.30)	25.06 (7.05)
양육 스트레스	40.38 (10.70)	41.34 (8.78)	40.87 (9.74)	40.26 (9.60)	39.94 (10.7)	40.10 (10.1)

<표 7>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의 이원공변량분석

(N=174)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합	F
공변량(막내 연령)	18.73	1	18.73	.36
주효과(주말/일반)	60.89	1	60.89	128.4**
주효과(어머니취업)	8.13	1	8.13	5.51*
상호작용효과	.37	1	.37	.01
오차	17458.50	169	103.304	
전체	17546.58	174		

*p<.05 **p<.01

3. 주말부부의 양육문제와 관련 변인

1) 주말부부 어머니의 양육죄책감과 관련 변인

주말부부 어머니의 양육죄책감과 양육스트레스는 주말부부 관련 변인, 인구통계학적 변인, 어머니의 취업 관련 변인, 심리 사회적 지원 변인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주말부부 관련 변인은 주말부부가 된 이유, 주말부부 지속 기간, 방문 소요 시간, 방문 빈도 및 연락 빈도, 방문 지속 일수 등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자녀 수, 해당 자녀와 막내 그리고 어머니의 연령과 어머니의 학력 및 취업 유무 등으로, 어머니의 취업 관련 변인은 직장에서의 시간적인 융통성, 직장에 대한 애착 정도, 직업에 대한 지향성 등으로, 심리 사회적 지원 변인은 시가, 친정, 이웃으로부터의 받는 자녀양육에 관한 정보적 지원 및 도구적 지원과 남편의 협력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상과 같은 네 가지 변인에 따라 주말부부 어머니의 양육죄

<표 8> 주말부부 어머니의 양육직책감과 관련 변인

(N=87)

		내용	n(%)	M(SD)	t/F	
주말 부부 변인	주말부부가 된 이유	남편직장 및 자녀교육 부인취직 및 직장이동	57(65.5) 30(34.5)	24.86(7.71) 26.13(8.10)	-.72	
		주말부부 지속기간	22개월 미만 22개월 이상	43(49.4) 44(50.6)	26.19(7.89) 24.43(7.75)	1.05
	소요 시간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44(50.6) 43(49.4)	26.00(7.47) 24.58(8.19)	.84	
	방문 빈도	주 1회 미만 주 1회 주 2회 이상	22(25.4) 39(44.8) 26(29.9)	24.68(9.00) 25.33(7.97) 25.77(6.11)	.11	
	연락 빈도	주 6회 이하 매일	27(31.1) 60(68.9)	26.15(8.09) 24.92(7.74)	.68	
	방문지속 일수	하루 이틀 사흘	12(13.8) 65(74.7) 10(11.5)	26.75(6.80) 25.58(8.10) 21.70(6.63)	1.31	
인구 통계 변인	자녀 수	1명 2명 3명 이상	24(27.6) 51(58.6) 12(13.7)	24.29(7.79) 25.92(7.69) 24.67(8.82)	.40	
		해당 자녀 연령	5세 이하 6세 이상	39(44.8) 46(52.2)	25.67(8.07) 25.00(7.69)	.40
		막내 연령	5세 이하 6세 이상	47(54.0) 40(46.0)	24.74(8.26) 25.95(7.32)	-.71
	어머니 연령	35세 이하 36세 이상	49(56.3) 38(43.7)	25.39(7.93) 25.18(7.78)	.12	
	어머니 학력	초대졸 이하 대졸 이상	34(49.4) 53(50.6)	24.74(8.36) 25.66(7.51)	-.54	
	어머니 취업	전업주부 취업모	34(49.4) 53(50.6)	25.53(7.82) 25.15(7.89)	.03	
취업 관련 변인	시간적 융통성	낮음 높음	18(49.1) 41(50.9)	26.63(7.81) 24.51(7.95)	.90	
		직장 애착	낮음 높음	22(41.5) 31(58.5)	27.05(7.96) 23.81(7.69)	1.49
	지향성	가정 직업	26(49.1) 27(50.9)	26.31(8.79) 26.04(6.90)	1.05	
심리 사회적 지원 변인	정보적 도움-시가	낮음 높음	66(73.9) 21(24.1)	26.23(7.64) 22.38(7.86)	1.98*	
		정보적 도움-친정	낮음 높음	38(43.7) 41(56.3)	26.45(7.40) 24.41(8.10)	1.21
	정보적 도움-이웃	낮음 높음	37(42.5) 50(57.5)	25.89(7.42) 24.86(8.15)	.61	
	도구적 도움-시가	낮음 높음	63(72.4) 24(27.6)	25.02(7.85) 26.04(7.86)	-.55	
	도구적 도움-친정	낮음 높음	38(43.7) 49(56.3)	25.97(7.51) 24.78(8.09)	.71	
	도구적 도움-이웃	낮음 높음	42(48.3) 45(51.7)	25.48(7.87) 25.13(7.86)	.20	
	남편의 협력	낮음 높음	41(47.1) 46(52.9)	25.76(7.59) 24.89(8.08)	.51	

*p<.05

책감을 독립표본 t 검증 또는 ANOVA로 분석한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먼저 주말부부 변인에 따라 볼 때 주말부부 어머니의 양육직책감은 통계적 유의성은 없지만 주말부부가 된 이유가 남편의 직장이나 자녀교육보다(M=24.89)는 부인의 취업

(M=26.13)에 있을 때, 그리고 주말부부가 된 기간이 22개월 이상일 때보다(M=24.43) 22개월 이하일 때(M=26.19) 더 높은 경향이 있었다. 또한 주말부부간에 매일 연락을 주고받을 때(M=24.92)보다 그렇지 않을 때(M=26.15) 주말부부 어머니의 양

육죄책감이 다소 높았다. 방문 빈도에 따라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방문 지속 일수가 하루(M=26.75)나 이틀(M=25.58)인 경우보다 사흘인 경우(M=21.70) 주말부부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예상과 달리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경우에는 어떠한 변수도 주말부부 어머니의 양육죄책감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셋째, 취업관련 변인에 따라서는 맞벌이 주말부부어머니는 직장에서 시간적 융통성이 클 때(M=24.51)보다 작을 때(M=26.63) 직장에 애착이 클 때(M=23.81)보다 작을 때(M=27.05) 양육죄책감이 큰 경향이 있으나 통계적 의미는 없었다.

넷째, 심리·사회적 지원 변인에 따라서 불 때에는 시가, 친정, 친구가 제공하는 도구적 지원이나 정보적 지원은 대체로 주말부부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은 유의한 관계가 유의한 없었다. 단, 시가에서 자녀 양육에 관한 정보를 많이 받을 때(M=22.38) 보다 적게 받고 있을 때(M=26.23) 주말부부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이 더 높았다($t=1.98, p<.05$). 또한 가장 중요한 심리 사회적 지원 변인이라 할 수 있는 남편의 협조 역시 주말부부 어머니의 양육죄책감과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주말부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 변인

<표 9> 주말부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 변인

(N=87)

	내 용	n(%)	M(SD)	t/F
주말부부 변인	주말부부가 된 이유	남편직장 및 자녀교육 부인취직 및 직장이동	40.02(10.8) 40.93(9.20)	-1.40
	주말부부 지속기간	22개월 미만 22개월 이상	41.79(10.3) 38.91(10.0)	1.32
	소요 시간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41.68(9.87) 38.95(10.5)	1.25
	방문 빈도	주 1회 미만 주 1회 주 2회 이상	40.14(8.42) 40.38(11.2) 40.42(10.4)	.11
	연락 빈도	주 6회 이하 매일	44.30(9.84) 38.55(9.95)	2.50**
	방문지속 일수	하루 이틀 사흘	41.75(8.31) 40.65(10.8) 36.60(8.00)	.45
	인구통계 변인	자녀 수	1명 2명 3명 이상	38.54(13.1) 40.75(8.36) 42.08(11.2)
해당 자녀 연령		5세 이하 6세 이상	41.72(10.9) 39.21(9.59)	1.14
막내 연령		5세 이하 6세 이상	41.49(10.3) 38.98(10.1)	1.15
어머니 연령		35세 이하 36세 이상	42.31(10.9) 37.79(8.76)	2.09*
어머니 학력		초대졸 이하 대졸 이상	40.71(10.18) 40.09(10.32)	.27
어머니 취업		전업주부 취업모	40.29(7.82) 40.36(10.6)	.22
취업관련 변인	시간적 융통성	낮음 높음	44.75(11.0) 38.46(10.0)	2.04*
	직장 애착	낮음 높음	42.55(8.81) 38.81(11.6)	1.27
	지향성	가정 직업	43.42(9.72) 37.41(10.8)	2.14*
심리 사회적 지원 변인	정보적 도움-시가	낮음 높음	41.09(9.64) 37.95(11.8)	1.23
	정보적 도움-친정	낮음 높음	40.32(11.4) 40.35(9.29)	-.014
	정보적 도움-이웃	낮음 높음	41.41(9.90) 39.54(10.5)	.84
	도구적 도움-시가	낮음 높음	40.05(9.06) 41.08(13.0)	-.42
	도구적 도움-친정	낮음 높음	39.39(12.1) 41.06(8.53)	-.75
	도구적 도움-이웃	낮음 높음	41.24(10.7) 39.49(9.80)	.80
	남편의 협력	낮음 높음	43.54(10.1) 37.48(9.51)	2.88**

* $p<.05$ ** $p<.01$

<표 9>은 주말부부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말부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t검증이나 ANOVA로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주말부부 관련 변인에 따라 살펴보면, 주말부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주말부부가 된 이유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고, 주말부부 지속 기간이 길고,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을수록 주말부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큰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또한 주말부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실제로 주말부부 가족이 만나는 방문 빈도와는 무관하고, 오히려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연락 빈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즉, 부부간에 매일 연락을 주고받는 주말부부 어머니가 ($M=38.55$) 그렇지 않은 어머니($M=44.30$)보다 양육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있었다($t=2.50, p<.01$). 그리고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지만 방문 지속 일수가 하루($M=41.75$)나 이틀($M=40.65$)일 때보다 사흘($M=36.60$)인 경우 주말부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적은 경향이 있었다.

둘째, 자녀의 수와 막내, 해당 자녀, 어머니의 연령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주말부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즉, 35세 이상($M=37.79$)의 주말부부 어머니보다 35세 미만($M=42.31$)의 주말부부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t=2.09, p<.05$). 또한 통계적 의미는 없었지만 해당 자녀의 연령과 막내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자녀의 수가 1명($M=38.54$)일 때보다 2명($M=40.75$)일 때, 그리고 그보다 3명($M=42.08$)일 때 주말부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이에 비해 주말부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학력이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셋째, 어머니의 취업 관련 변인 3 가지 중 직장에서의 시간적 융통성($t=2.04, p<.05$)과 직업 지향성($t=2.14, p<.05$) 등 2가지 변인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어 어머니의 취업 관련 변인은 맞벌이 주말부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에서 시간적 융통성이 많을 때 ($M=38.46$)보다 없을 때($M=44.75$) 그리고 직업 지향적($M=37.41$)이기보다 가정 지향적인 어머니($M=43.42$)가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었다. 또한 통계적 의미는 없었을지라도 직장에 대한 애착이 적을수록 주말부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높은 경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심리 사회적 지원 변인에 따라서는 통계적 의미는 없었지만 시가로부터는 정보적 지원이 적을 때 주말부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 또한 주말부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친정이나 친구로부터의 정보적 지원이나 도구적 지원에 따라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며, 남편의 협력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88, p<.01$). 즉, 남편의 협력이 높은 경우($M=37.48$)보다 낮은 경우($M=43.54$) 주말부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현저하게 높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는 현대사회에서 계속 증가할 주말부부의 자녀양육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주말부부 어머니와 일반부부 어머니를 대상으로 대리양육 실태와 자녀발달, 양육죄책감과 양육스트레스를 비교하고, 주말부부 어머니의 양육죄책감과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여러 변인들을 알아보려 하였다. 연구 결과 발견된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말부부의 대리 양육 실태는 일반부부의 경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친인척에게 대리양육하는 경우 주말부부는 일반부부에 비해 시댁식구보다 친정식구를 의존하는 경향이 월등히 높았다. 이는 남편과 떨어져 살기 때문에 친정과 더욱 밀접하게 교류할 수 있는 주말부부의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부부에 비해 주말부부는 종일제 보육기관 의존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를 종일제 보육기관에 잘 보내지 않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주말부부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종일제 보육기관 외에 기타 다른 대리양육 방법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주말부부는 2가지 또는 3가지 이상의 복수 대리양육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부부보다 훨씬 더 많았다. 이는 주말부부가 대리양육에 지출하는 비용이 월 평균 40만원으로 일반부부보다 훨씬 많다는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부부들보다 주말부부들이 대리양육과 관련하여 더 많은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함을 시사한다.

둘째, 주말부부 자녀는 인지·사회성 발달 측면에서 일반부부 자녀와 차이가 없었다. 이는 주말부부들에게 매우 반가운 결과로서 주말부부가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일반적인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주말부부의 경우 정서적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호소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후속 연구에서는 인지 발달과 사회성 발달 외에도 부모자녀간의 정서적 유대 관계의 발달 및 자녀의 정서적 발달 측면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발달을 연구자가 직접 측정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간접적으로 구한 것이다. 자녀의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보고는 객관성의 결여와 바람직하게 응답하려는 성향이 작용할 수 있으므로, 연구자가 자녀의 발달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거나 교사와 같은 제 3자에 의한 자녀 발달 특성의 측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자녀의 지각도 중요하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자녀도 연구대상에 포함시켜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박응임, 2002).

셋째, 주말부부 어머니는 일반어머니보다 양육죄책감이 높았으나 양육스트레스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남편과 떨어져 생활한다는 상황으로 인해 주말부부 어머니들은 아이에게 미안함을 더 느끼게 되지만, 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특별히 더 경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말부부 어머니들이 양육죄책감

을 많이 느낀다는 것은 선행연구(김태현·박숙자, 1992; 허영숙, 1993; Gerstel & Gross, 1984; Johnson, 1986)에서 쉽게 유추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주말부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일반부부 어머니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자녀양육스트레스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배우자 관계라는 점(박해미, 1994)에서 볼 때 의외의 결과이다. 이는 주말부부가 양육의 측면에서 부정적이지 않다기보다는 우리나라 남편들의 육아참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반증해주는 자료로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주말부부의 양육죄책감과 관련된 변인을 살펴보면 주말부부가 된 이유가 부인의 취업에 있을 때 주말부부 어머니는 양육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이는 분거가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 주말부부보다는, 여성의 자아실현을 위해 자발적으로 분거를 결정하는 최근의 맞벌이 주말부부 어머니들의 심리적 갈등이 더 클 수 있을 시사한다. 그런데 선행연구(박희선, 1999; 옥경희, 1999; 이기숙, 1999; 채옥희, 1998; Winfield, 1985)와 달리 주말부부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은 자녀수나 자녀의 연령과 관계가 없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아동의 연령을 만 3-8세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연령 범위를 확대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어머니의 연령, 학력, 소득, 취업유무에 따라라도 양육죄책감은 차이가 없었으나 취업모의 경우 직장에서의 시간적 융통성이 높고, 직장애착이 강할수록 양육죄책감을 덜 느끼고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옥경희, 1999; Gross & Gerstel, 1984)를 지지하는 결과로서 단순히 취업 유무보다는 취업 동기나 취업 조건 등이 더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이외에도 시가로부터 육아에 관련된 정보를 많이 받는 주말부부 어머니일수록 양육죄책감을 덜 느끼고 있었으며, 이는 양육의 직접적이고 행동적인 지원 못지 않게 정신적 조언이나 대화 및 심리적 교류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육아와 관련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정보나 도움은 물론이고 남편의 협력도 주말부부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을 완화시켜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부부 어머니의 양육죄책감과 달리, 양육스트레스는 주말부부가 된 동기와는 무관했고, 주말부부를 지속한 기간과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박희선(1999)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방문 지속일수가 1-2일 일 때보다 3일인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낮았다. 이는 방문기간이 짧을 경우 이동으로 인한 피로 등으로 인해 아버지의 존재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앞으로 확대 실시될 주 5일 근무제는 주말부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버지의 방문 빈도와 관계 없고, 오히려 전화나 이메일 등의 연락 빈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이는 선택의 여지없이 외부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방문 빈도보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연락빈도가 중요함을 나타내는 결과로서, 남편의 관심과 노력이 부인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중요성을 시사한다. 그런데 양육죄책감의 경우와 달리, 어머니와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주말부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가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박희선, 1999; 이기숙, 1999; 채옥희, 1998)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주말부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죄책감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학력, 소득, 취업 유무와 관계가 없고 시간적 융통성, 직장 애착, 직업지향성 등 취업관련 변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이외에도 양육스트레스는 양육죄책감과 달리 남편의 협조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는 남편이 부모로서 부인과 대화하고 지원해주고, 자녀를 평가하거나 자녀 문제를 다룰 때 공통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다른 어떤 주변 사람들의 심리적 사회적 지원보다 어머니에게 위안이 됨을 시사한다. 또한 이와 같이 양육죄책감과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인이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두 개념 모두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관련된 것이지만 각기 다른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별개의 특성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주말부부는 다양한 대리양육 방법을 통하여 자신들의 상황에 적응하고 있으며, 자녀발달이나 양육에서 생각만큼 부정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양육과 관련해서 주말부부 어머니가 겪는 스트레스나 죄책감은 사회 경제적 상황의 변화나 심리적 지원에 의해서 어느 정도 경감될 수 있으므로 이를 도와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접수 일 : 2003년 1월 15일

□ 심사 일 : 2003년 1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3년 3월 25일

[참 고 문 헌]

- 김경은·정옥분(1998). 주말부부 어머니의 결혼적응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1), 35-49.
- 김은경(1999). 주말부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1), 24-44.
- 김태현·박숙자(1992). 한국의 비동거가족연구. *가족학논집*, 4, 143-160.
- 박성옥·양연숙(1998). 어머니가 지각하는 가족지지, 격리불안 및 양육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159-173.
- 박숙자(1991). 직업과 가족, *한국가족학회 편. 현대가족과 사회* (212-231).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옥임(2002). <토론글> 주말부부의 자녀양육. 주말부부: 실태, 문제, 가정관리전략. *한국가정관리학회 제32차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39-40.
- 박해미(1994). *자녀양육행동과 관련된 부모의 스트레스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희선(1999). *주말부부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죄책감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육경희(1999). 맞벌이 주말부부의 부모역할 갈등.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1), 45-66.
- 이기숙(1999). 맞벌이 주말가족의 성격분석을 위한 시론.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1), 1-23.
- 정기선(1985). 가족위기와 부부관계의 변화: 일시해외취업자 가족의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채옥희(1998). Commuter Marriage 가정경영 실태와 문제. *대한가정학회지*, 36(9), 153-166.
- 허영숙(1994). 주말에 남편을 만나는 맞벌이 교사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bidin, R.R.(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Crinic, K.A. & Greenberg, M.T.(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Galper, A., Wigfield, A., & Seefeldt, C.(1997). Head Start parents' beliefs about their children's abilities, task values, and performances on different activities. *Child Development* 68(5). 897-907.
- Gerstel, N. R.(1978). *Commuter Marriage: Constraints on Spouses*. NY: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ASA).
- Gerstel, N. & Gross, H. E.(1982). Commuter Marriages: A Review. *Marriage and Family Review*, 5(2), 71-93.
- Gerstel, N. R. & Gross, H.(1984). *Commuter Marriage*. NY: The Guilford Press.
- Goldberg, L. L. & Meitz, J. E. G.(1985). *Commuter Marriage. paper presented at Society for the Study of Social Problems(SSSP)*.
- Gross, H. E. (1980). Dual-career couples who live apart : Two typ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567-576.
- Groves, M. M. & Horn-Wingerd, D. M.(1991). Commuter marriages: personal, family and career issues.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75(4), 212-217.
- Johnson, S. E. (1986). Commuter family relationships: alive and thriving.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Families Alive' Conference*, p.9.
- Kasinsky, R. G. & Gerstel, N. R.(1978). *The Commuter Marriage within Dual-Career Families*. NY: International Sociological Association (ISA).
- Melson, G. F., Ladd, G.W., & Hsu, Huri-Chin.(1993). Maternal support networks, maternal cognition, and young children's social and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4, 1401-1417.
- Winfield, F. E. (1985). *Commuter Marriage : Living Together, Apart*, NY: Columbia University Press.